

“모두가 주인공, 이 말하고 싶었다”

‘1987’ 장준환 감독



영화감독 장준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내가 주인공이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장준환(47) 감독은 새 영화 ‘1987’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영화 홍보용 카피에 ‘모두가 주인공이었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8월 항쟁을 다룬다. 영화에는 그해 1월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에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 담겼다.

대학생 박종철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꼭 부검해야 한다고 버틴 검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위함을 무릅쓰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한 발 전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힘겨운 발구름이 합쳐져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만들며, 외마디 외침이 뭉쳐져 거대한 함성이 되는 과정이 ‘1987’에 담겼다.

“이 영화로 제가 꿈꿨던 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죠”

장 감독은 이른바 ‘중격의 데뷔작’으로 불리는 ‘지구를 지켜라’(2008)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1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 ‘화:괴물을 삼킨 아이’로 다시 한번 호평받은 단 두 편의 영화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987’은 전작과는 달라

너무 다른 작품이다. 지난 작품들이 인간 실존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파생한 영화들이라면 ‘1987’은 장 감독의 말처럼 사회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다. 이름을 가리고 본다면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이다.

“저도 제가 역사를 혹은 시대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제 자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고민, 자라는 세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람들과 잘 어울려 가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 거죠. 영화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87’은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였다. 김경찬 작가와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출연할 배우들을 하나 둘씩 만나러 다닐 때만 해도 지난 정권이 힘을 잃지 않았던 시기였다.

영화계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고 자칫하다가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수 있었다. 위기 속에서도 배우 강동원·김윤석·하정우 등이 동참하면서 그나마 이 영화의 뜻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촬영 직전 촛불집회가 일어났고, 촬영 도중 정권이 바뀌었다. 장 감독은 “1987년에 대해 어떤 영화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화가 났다. 그래서 무조건 이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일종의 반골 기질, 뼈뺀 태도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광장의 촛불과 ‘1987’에 관한 비교를 많이 해주세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30년 전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 또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울부짖어야 하는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이 영화에 담겼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뉴스1

신태용호, 내년 3월 폴란드와 A매치 평가전 치른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겨냥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 폴란드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내년 3월 28일 폴란드와 폴란드에서 원정 친선경기를 갖기로 폴란드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3시45분,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45분이다. 개최도시와 경기장은 추후 결정된다.

협회는 “이번 경기는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스웨덴을 상대하

는 한국과 역시 월드컵에서 같은 조에 속한 일본전에 대비해 스피링 파트너를 찾던 폴란드의 이해가 맞아 전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월드컵 유럽 지역예선 E조에서 8승 무패의 성적을 거둬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가 대표적인 선수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대 A매치 상대 전적은 1전1승으로 한국이 우위다.

2002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나 황선홍 유상철의 연속 골

로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2011년 10월 조광래 감독 시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치러 2-2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FIFA가 허용한 교체 인원(6명) 초과로 인해 A매치 기록에서 제외됐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전지훈련 기간에 2~3차례의 경기를 갖고, 3월 FIFA A매치 기간에 폴란드와 외에 한 경기를 더 치를 계획이다.

상대팀이 확정되는 대로 평가전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1

IPC “러시아 평창 패럴림픽 출전 가부 내년 1월 말 확정”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0일(현지시간) 국가 차원의 도핑으로 자격 정치 처분을 받은 러시아의 2018년 평창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 가부를 내년 1월 말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IPC는 애초 22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2018년 개막하는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월26~28일 소집하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뤘다고 전했다.

IPC는 러시아 선수단의 자격회복에

필요한 5가지의 조건을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회(RPC)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IPC는 “러시아 당국의 정식 회답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도 평창 패럴림픽 선수 등록 시한이 2월23일인 점에서 IPC로서는 러시아에 최대한 유예기간을 제공할 셈이다.

RPC는 자격 회복 조건 가운데 세계 반도핑기구(WADA)로부터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러시아 국내 반도핑기구의 자격 회복, 러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부정을 인정하는 2가지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PC는 19일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

러시아 측은 국가 차원의 도핑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작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 이어 평창 대회에도 전면 제외당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참가를 금지했지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뉴스1

서재응, KIA 타이거즈 코치 계약

‘나이스 가이’ 서재응(40)이 KIA 타이거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서재응은 지난 19일 KIA와 코치 계약을 맺었다.

KIA는 아직 서재응 코치의 보직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부수력 강화를 위해 그를 불렀다.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은퇴한 서 코치는 2년동안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KIA의 러브콜을 받은 서 코치는 친정팀에서 지도자로 데뷔하게 됐다.

그는 광주일고를 졸업한 후 인하대 재학생이던 1998년 뉴욕 메츠에 입단했다.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약했다. 통산 118경기에서 28승4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했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KIA에 입단, 8시즌 동안 164경기에 등판해 42승48패4홀트2세이브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겼다.

/뉴스1



KB금융그룹, 내년 KPGA 투어 7억원 대회 창설

KB금융그룹이 내년 5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를 창설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안취부)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21일 오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KPGA 코리아투어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향후 2년간 대회 개최에 합의했다.

2006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B금

용 스타렉스 피인십’을 개최하고 있는 KB금융그룹은 남자골프 대회의 새로운 도약과 남녀 골프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칭 ‘KB금융 챔피언십’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 대회는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나흘간 펼쳐질 예정이다.

우승상금 1억4000만원 등 총상금은 7억원 규모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인 ‘리얼아드컵’을 한 차례 후원하며 남자골프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KPGA 안취부 회장은 “KB금융그룹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대회가 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PGA는 2018년도 전체 KPGA 코리아투어 일정은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신과 함께’ 개봉 첫 날 40만명 ↑... 주말 흥행 신호탄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이 개봉 첫 날 4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신과 함께-죄와 벌’은 전날 1538개관에서 6820회 상영, 40만18533명을 끌어모아 ‘강철비’(14만1321명)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매출액은 29억8500만원, 매출액 점유율은 63.3%였다. 이 영화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신과 함께’는 21일 오전 9시 현재 예매 관객수 30만2249명(예매 점유율 54.9%)으로 예매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강철비’(예매 관객수 8만2891명)와 격차가 커 무난히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작품은 ‘비너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 등을 연출한 김용화 감독의 새 영화다.

주호민 작가가 2010~2012년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화제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소

방관 ‘김자홍’이 저승으로 가 49일 동안 7번의 재판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저승 삼차사 ‘강림’ ‘해원맥’ ‘덕준’은 자홍과 재판을 함께하며 그의 삶을 적극 변호한다.

하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이정재 등이 출연하는 작품으로 총 제작비로 약 400억원이 투입됐으며, 2부작으로 제작돼 2편은 내년 여름 개봉할 예정이다.

/뉴스1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아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